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 수 개 요 >

◈ 연수기간 : 2019. 4. 11.(목) ~ 4. 19.(금) [7박9일]

◈ 연수국가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예 산 군
(문화관광과)

목 차

Ⅰ. 연 수 개 요 2

Ⅱ. 연 수 국 가 6

1. 노르웨이 6
2. 스 웨 덴 9
3. 핀 란 드 12
4. 연수국가비교 15

Ⅲ. 주요 방문기관 현황 및 연수내용 16

1. 노르웨이 지방정부협회 17
2. 스웨덴 유아복지기관 20
3. 핀란드 노인복지시설 23

Ⅳ. 시사점 25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 무 국 외 연 수 결 과 보 고 서

❖ 선진국의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내실있는 저소득층 문화향유 지원 정책 추진

I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 문화복지정책 담당자들의 선진 문화복지 운영실태 및 현장체험을 통해 충남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접목 추진

❍ 선진 문화복지 사례 견학을 통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2. 연수개요

❍ 기　　간 : 2019. 4. 11.(목) ~ 4. 19.(금) [7박9일]

❍ 연수국가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인　　원 : 13명(도 1명, 시·군 담당자 11명, 문화재단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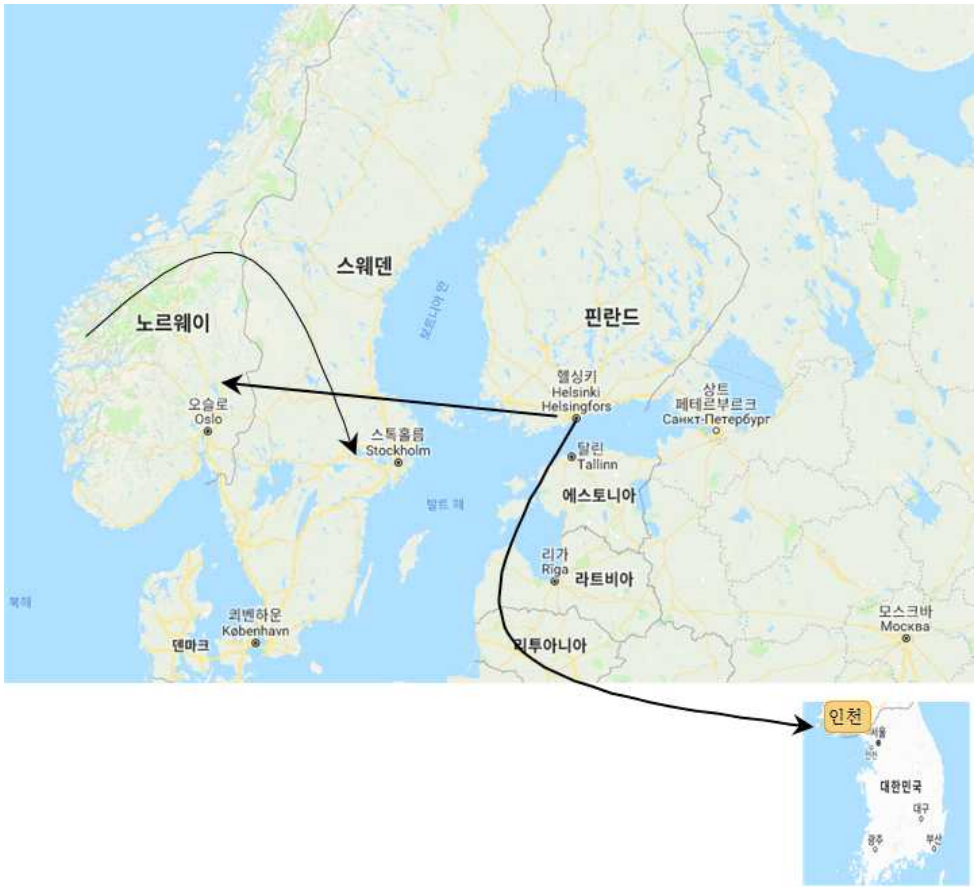
3. 방문기관

국 가 명	방 문 기 관 명	주 요 내 용
노 르 웨 이	지 방 정 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정책
스 웨 덴	유 아 복 지 기 관	유아복지정책
핀 란 드	노 인 복 지 시 설	노인공유주택 운영 사례

4. 연수 참가자

연번	소속	직위및직급	성명	담당업무	성별	비고
	13기관		13명			
1	충청남도	문화정책팀장	김성균	문화정책총괄	남	
2	공주	문화예술팀장	조성상	문화예술전반	남	
3	보령	문화예술팀장	신영옥	문화예술전반	여	
4	서산	행정7급	백종성	문화예술업무	남	
5	논산	행정7급	여형구	문화예술업무	남	
6	금산	행정7급	신호진	문화예술업무	남	
7	부여	행정8급	최민아	문화예술업무	여	
8	서천	문화예술팀장	오대석	문화예술업무	남	
9	청양	행정7급	김명선	문화예술업무	여	
10	홍성	공무직	한향숙	문화예술업무	여	
11	예산	행정7급	이해진	문화예술업무	여	
12	태안	행정7급	김동인	문화예술업무	남	
13	충남문화재단	주 임	이현정	통합문화이용권담당	여	

5. 연수경로



6. 연수일정

날 짜	방문도시	주요 일정 및 연구 조사계획
1일차 4. 11.(목)	노르웨이 (오슬로)	▶ 인천국제공항 출발 → 핀란드 경유 ▶ 노르웨이 도착
2일차 4. 12(금)	노르웨이 (오슬로)	▶ **노르웨이 지방정부 협회 방문** **<문화복지 정책 및 관리 현황 참관>** ▶ 오슬로 시청방문
3일차 4. 13(토)	노르웨이 (오슬로→ 게일로→플람)	▶ 플롬 관광안내소 (Visitor Center, Flåm Turistinformasjon)방문 및 철도박물관 견학 ▶ 세계 최대의 피요르드인 송네 피요로드
4일차 4. 14.(일)	노르웨이 플람→ (베르겐)	▶ 한자박물관 견학, 베르겐 이문화 체험 ▶ 노르웨이 대표 음악가 그리그 생가 및 박물관 견학
5일차 4. 15.(월)	스웨덴 스톡홀름	▶ 스톡홀름 시청사 방문 견학 ▶ 스톡홀름 대성당 등 이문화 체험
6일차 4. 16.(화)	스웨덴 솔레투나	▶ **스웨덴 유아복지기관 방문** **<유아복지 정책 및 관리 현황 참관>** ▶ 유르고루덴섬의 바사호 박물관등 이문화 체험
7일차 4. 17.(수)	핀란드 (헬싱키)	▶ **핀란드 노인복지시설 방문** **<핀란드의 노인복지시설 현황 브리핑>** ▶ 우스펜스키 교호, 마켓광장, 세벨리우스 공원 등 이문화 체험
8일차 4. 18.(목)	핀란드 (헬싱키)	▶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수오멘린나 요새 견학 ▶ 핀라드 각 지방의 전통적 생활방식과 문화를 볼 수 있는 세우라사이 야외민속박물관 견학
9일차 4.19.(금)		▶ 인천국제공항 도착

Ⅱ 연수 국가

1 노르웨이



▨ 공식명칭 : 노르웨이(Norway)

▨ 국가원수 :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총리 [2013년부터]

▨ 수　　도 : 오슬로

▨ 면　　적 : 3,851만ha(세계 60위, 2015 국토교통부 기준)

▨ 인　　구 : 540만(세계 118위, 2019 통계청 기준)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 노르웨이 일반개요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쪽 부분, 얀마옌 섬, 스발바르 제도, 그리고 부베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밀도가 작은 나라다. 나라의 대부분이 동쪽의 스웨덴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쪽은은 핀란드, 동쪽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북극해와 바렌츠해와 접하고 있는 해안선은 피오르로 유명하다.

노르웨이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목재, 해산물 등이 풍무하며, 지형을 이용한 대량의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 매장량이 엄청나 2011년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천연가스, 5위의 석유 수출국이며, 관련 산업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의 힘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에서 제일 크며, 규모는 현재 한화 650조에 달한다. 세계 주식시장 1%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은 항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2011년 기준으로 흑자 규모는 한국의 2배에 달한다.

▨ 노르웨이 일반개요(계속)

석유가 발견되기 전인 1970년에는 스웨덴의 총 경제규모의 1/3밖에 되지 않았으나 자원의 힘입어 2009년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2배에 달하는 옛 종주국 스웨덴의 총 경제력마저 추월하였다. 현재 하랄드 5세가 국왕이며,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아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 우방국 중 하나이다.

노르웨이는 유엔에 경제적으로 크게 공헌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UN군에도 참여하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수단, 리비아 등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유엔, NATO, 유럽 평의회, 북유럽 이사회의 창립국 중 하나이며, 유럽 경제 지역, WTO, OECD의 멤버이자 셍겐 조약에 서명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01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09년부터 가장 최근의 통계까지 노르웨이는 인간개발지수(국제연합개발계획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의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에서 세계 정상을 기록한 대표적 선진국이다.

2010년 기준으로 연간 근로시간은 약 1,400시간으로 주당 27시간 정도이며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국민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은 산업마다 다르나 연간 310,000크로네(약 6,100만원)정도이며, 2010년 기준으로 대졸자 초봉 평균은 420,000크로네이다.

▨ 노르웨이 복지정책

소득 40%정도의 살인적인 세율로 인한 금액이 복지에 투입되며 복지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국가이다. 노르웨이 복지 정책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이때 무상급식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오슬로식 아침식사를 선보인 바 있다.

젊은 시절 부지런히 모아 노후나 실직 혹은 질병 등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버는 족족 통장에 한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의료가 모두 지원이 되어 사보험이 없고 실직하더라도 길게는 10년 이상 이전의 급여를 그대로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고 물가가 비싸 세금납부를 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소비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노르웨이 복지정책(계속)**

노르웨이의 석유라는 자원과 적은 인구로 복지가 탄탄한 것도 있지만 산유국이라고 해서 모두 선진국에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잘 사는 국가도 복지 수준과 삶의 질, 부정부패나 청렴 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며 쿠에이트나 브루나이처럼 전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나라도 있으나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

석유라는 자원이 복지를 쉽게 이룰 수 있는 플러스 요소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천혜의 조건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치 역량이 더해져 이러한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준조세-조세 부담과 함께 국민소득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 적은 인구에 비해 잘 발달된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천혜의 조건을 타고나는 것과 전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을 갖추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울지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 스 웨 덴





▨ **공식명칭 : 스웨덴(Sweden)**

▨ **국가원수 : 스테판 뢰프벤(Stefan Lofven)총리 [2014년부터]**

▨ **수　　도 : 스톡홀름**

▨ **면　　적 : 4,474만ha(세계 53위, 2015 국토교통부 기준)**

▨ **인　　구 : 1,005만(세계 89위, 2019 통계청 기준)**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 **스웨덴 일반개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이다. 반도의 동부를 차지하며 서쪽에는 노르웨이가 있다. 스웨덴 동쪽에는 핀란드가 있고 남쪽에는 덴마크가 있다. 행정 구역은 21개 주(län)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290개 지방 자치체(kommun)로 나뉜다. 스웨덴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중 기온이 온화하다.

사민주의를 내세우는 사회민주당 계열이 20세기 장기집권한 바 있고 21세기 들어서도 원내 1당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이 북유럽권 복지국가로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이다.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이다. 대표적인 경제강국 중 하나로 2017년 기준 스웨덴의 1인당 GDP는 $53,248이다. 널리 알려진 스웨덴의 대표 기업으로는 볼보,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이케아, H&M 등이 있다. GDP 대비 R&D 지출도 높은 편이다.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이긴 하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체 화폐인 크로나(Krona, 왕관을 뜻하는 crown에서 유래)를 쓴다. 화폐 단위 표기는 ':-'를 사용하며 통화 기호는 SEK이다.

▨ 스웨덴 일반개요(계속)

스웨덴은 북유럽 제1의 광공업국이다. 철광석의 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며, 큰 수출품이 되고 있다. 대신 석탄이 별로 생산되지 않아 많이 수입하는 형편이다. 자동차, 기계, 철강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이 제품의 수출량이 큰 편이다. 무역 상대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등이다.

스웨덴의 전체 인구는 약 9,960,487명으로 거의 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참고로 스웨덴의 인구는 수만명 규모의 북부 원주민 사미인들을 포함한다. 핀란드와의 국경에 주로 사는 5만여명의 핀란드계 스웨덴인들도 있지만 원주민 소수 민족이나, 20세기 이후에 스웨덴에 이민 온 핀란드인 1, 2세대가 45만명 정도로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스웨덴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민을 내보내는 나라였다가 제2차 세계 대전 후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바뀌었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3.3%가 외국 태생이고 약 5분의 1이 이민자거나 그 자녀들일 만큼 이민자 출신이 많다.

▨ 스웨덴 복지정책

스웨덴은 경제/사회학적으로 semi-socialist state(半사회주의형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며 가장 전폭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로 꼽힌다. 이 나라의 복지 모델이 확립된 것은 1950년대 스웨덴이 유럽 1위의 경제 부국으로 등극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모델을 차용한 것에서 시작한다. 스웨덴은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우파연립내각이 들어서며 스웨덴 복지 제도가 상당히 축소되기도 했지만,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복지 국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좌파연립내각이 다시 들어섰다.

스웨덴의 사회 복지는 사회 건강부가 담당한다. 이는 금융, 질병, 고령자, 사회 서비스, 의료, 아동 보호, 장애인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보건 의료) 스웨덴의 의료는 국가의료보험이 존재하는 지방 분권제이다. 국가의료보험은 스웨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한 세금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마련한다.

▨ 스웨덴 복지정책(계속)

(고령자 복지) 고령자 복지는 스웨덴 지방 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다. 양로원과 자택 요양이 포함된다.

(사회보장 제도) 스웨덴의 사회 보장 제도는 스웨덴 사회 보험 단체가 관할하고 있으며 그 외 개별적 사회 보장 제도가 존재한다.

-양육수당(Barnbidrag)및 부모 수당(Föräldrapenning): 16세 자녀까지 금전적 지원 및 아동 한명당 480일 분의 양육 휴업 지원, 질병 및 장애아에 대한 수당이 있다.

-주택수당(Bostadsbidrag): 주거지 마련에 대해 지원하며 소득 제한이 있다.

-상병수당(Sjukpenning), 상병보상연금(Sjukersättning), 장애자 소득

-보상금(Handikappersättning): 병이나 장애로 일하지 못할때 받는 수당

-노인연금(Ålderspension)보증 연금(Garantipension): 퇴직자 수당

-생계비보조금(Försörjningsstöd): 저소득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유지 수당

(교육 복지) 스웨덴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다. 이는 스웨덴이 대졸이상 학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해 주었다.

(노동자 복지) 연대임금제를 통해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중앙협의로 산별 임금차별을 줄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도 노사가 같이 정하는데, 평균임금의 62%이다. 즉, 스웨덴은 노동조합과 자본가가 같이 회사를 꾸리는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대임금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이며, 연대임금제를 참여할 수 없는 영세사업장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실직자들은 국가가 적극적 노동정책으로써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되도록 한다.

3 핀 란 드





▨ **공식명칭 : 핀란드(Finland)**

▨ **국가원수 : 사울리 니니스토(Sauli Vinm Niinisto)대통령 [2012년부터]**
Juha Petri Sipil 내각총리 [2015년부터]

▨ **수 도 : 헬싱키**

▨ **면 적 : 3,384만ha(세계 64위, 2015 국토교통부 기준)**

▨ **인 구 : 556만(세계 115위, 2019 통계청 기준)**

▨ **정부형태 : 이원집정부제(대통령중심제+내각책임제)**

▨ **핀란드 일반개요**

북쪽은 노르웨이, 서쪽으로는 스웨덴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서쪽은 보트니아 만, 남쪽은 발트 해, 남쪽은 핀란드 만과 맞닿아 있다. 보스 만 건너편은 스웨덴, 핀란드 만 건너편은 에스토니아다. 동쪽에서 남쪽 걸쳐 러시아와 육로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핀란드는 호수와 섬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호수와 섬이 많다. 호수 187,888개와 섬 179,584개가 있다. 사이마호는 유럽에서 6번째로 크다.

최고 입법기관인 의회(핀란드어: Eduskunta, 스웨덴어: Riksdag)는 단원제로 2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15개 선거구로 나누어 개방식 비례 대표제 선거로 뽑힌다. 의회는 헌법을 고치거나 내각을 해임시키거나 대통령이 발동하는 거부권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유럽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1906년 보통 선거권이 실시된 이후 핀란드 국회는 우파인 국민연합당, 농민당과 좌파인 사회민주당,

▨ **핀란드 일반개요(계속)**

좌익연합 등의 정당이 지배해왔다. 핀란드는 소련의 영향력이 컸던 냉전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총리는 부총리와 장관과 함께 내각을 구성한다. 각 각료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총리는 총선 후 각당 대표의 협상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취임한다. 다른 각료는 총리의 임명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정 면에서는 선진적인 북유럽 형의 복지국가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전후 배상금 등의 지불과 같은 외적인 요소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은 우선순위가 밀렸지만, 급속하게 복지 국가 건설에 매진하여 북유럽 형의 사회에 근접하였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부패가 적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 민간 활동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에 의한 정치 부패 인식 지수 조사에서는 2004년까지 1위를 지켰지만, 2009년에는 6위로 떨어졌다.

핀란드의 헌법에서 특이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에게는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핀란드 이외에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성문 헌법이 없는 영국뿐이다. 오늘날 핀란드는 6개의 주(래니 lääni, 복수 래닛 läänit)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 **핀란드 복지정책**

핀란드는 핀란드 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는 고용주, 피고용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진찰, 각종 검사, X-선 촬영 등은 무료로 제공되며, 기타 의료서비스도 실제 비용의 10%선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핀란드 복지정책(계속)

취업자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 소득의 약 70%를 질병수당으로 지급하며, 모든 직장의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핀란드는 6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며, 일반국민연금 및 소득비례지급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국민연금은 수혜자의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 매월 450~500유로 가량 지급한다.

소득비례지급연금은 취업기간 및 취업 중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봉급의 최대 60%까지 지급한다.(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공무원들은 소득액비례지급연금제도와 유사한 자체 연금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핀란드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기금은 고용주와 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피고용자가 일부를 부담한다. 핀란드의 노동자들은 실업 후 500일까지 월평균 990유로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본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실업 후 500일까지 월 평균 약 500유로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500일 동안 실업수당을 수급 받은 후에도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최근 15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근무 유경험자에 한함)와 학위 취득 후 최초 구직을 실패한 경우에는 월 평균 약 500유로의 노동시장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 후 재취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185일 동안 취업프로그램 보조금이 과거 소득에 따라 약 100~700유로 추가 지급된다.

핀란드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들에게 최저 식비, 의복비, 교통비, 문화생활비(전화, TV 시청)를 감안한 범위 내에서 최대 월 344유로까지 생계 보조비를 지급하며, 배우자는 85%를 지급받는다.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11%가 소득보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4 연수 국가 비교

구 분	대한민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국가명	Republic of korea	Norway	Sweden	Finland
수 도	서울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키
인 구	5,163만명	535만명	998만명	554만명
면 적	100,364㎢	323,802㎢	450,295㎢	338,145㎢
GDP	US$ 1조 6557억	US$ 4,414억	US$ 5,547억	US$ 2,766억
1인당 GDP	US$ 32,046달러	US$ 82,372달러	US$ 53,867달러	US$ 50,068달러
정부형태	대통령제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행정구역	광역17, 기초226	19개의 주	21개의 주 290개의 자치체	19개의 주지역 70개의 부지역 320개의 지자체

Ⅲ 주요 방문기관 현황 및 연수내용

- 방문기관 요약 -

국 가 명	방 문 기 관 명	주 요 내 용
노르웨이	노 르 웨 이 지방정부협회 (2019.04.12.)	- 정식명칭 : Norwegian Norway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 싸 이 트 : www.ks.no - 주 소 : Haako Vlls gt. 9, 0161 Oslo - 설 립 일 : 1972년 - 구 성 원 : 18개 주정부 및 422개 지자체 - 주요시책 : 지방 정부 자문 및 중앙단체 교섭 - 방문목적 : 노르웨이 복지 정책 벤치마킹
스 웨 덴	유 아 복 지 기 관 (2019.04.16.)	- 정식명칭 : Banerporten(유치원) - 주 소 : Rigagatan 1 at the area Östermalm - 직원수/원아수 : 15명/50명 - 주요시책 : 안전, 기쁨, 자아 - 운영시간 : 07:30 ~ 17:30 - 방문목적 : 유아복지정책 벤치마킹
핀 란 드	노 인 복 지 시 설 (2019.04.17.)	- 정식명칭 : KOTISATAMA - 직원수/거주인원 : 0명/81명 - 주요시책 : 공유, 평등 - 방문목적 : 새로운 주거형태인 노인공유주택 탐방

1 노르웨이 지방정부협회



노르웨이 지방정부협회 전경

노르웨이 지방정부협회

▩ 방문일시 : 2019. 4. 12.(금) 13:00
▩ 기 관 명 : KS, Norwegian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노르웨이 지방자치 단체 협회]
▩ 위 치 : Haako Vlls gt. 9, 0161 Oslo
▩ 설 립 일 : 1972년 설립
▩ 구 성 원 : (현)18개 주정부 및 422개 지자체로 구성
▩ 방문목적 : 복지정책 벤치마킹
▩ 진 행 자 : Ms Elita Cakule Mr.Bjoern Rongevaer
▩ 내 용 : 브리핑 및 방문단 질의

▩ 현 황

- 기관에서 하는 일

1. 중앙정부, 의회, 노동단체 및 기타 조직에 대한 회원들의 이익을 지지
2. 지방정부의 발전사항 등을 회원들에게 자문
3. 회원들을 대신하여 중앙 단체 교섭 실시 및 회원 간 경험 교환
4. 중앙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시행여부 감독 및 재정 감사

- 기관의 주요시책 및 성과

1. 정부와의 협의
2. 법적 문제에 있어서 회원(지자체)들에 대한 지원
3. 국제 문제에 대한 지방 정부 대표

▨ 브리핑 내용

1. 기관소개
   - 18개 주정부 및 422개 지자체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부터 11개 주정부와 356개 지자체로 행정구역의 간소화로 변화될 예정임
   - 노르웨이는 정부, 국회, 지방정부(주정부, 지자체) 3개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우리기관은 그 중 지방정부로 구성된 정부를 상대로 지방정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임
2.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
   - 대상은 합법적인 거주자 모두에게 해당됨(540만명)
   - 복지혜택은 차별 없이 동등하며 빈부 또는 지역에 따라 틀려지지 않음(지역 간 인구이동 80년간 없음)
   - 540만명을 관리하기 위한 50만의 지자체 공무원과 의원 및 지자체장 11,500명이 구성되어 있음
   - 복지정책은 모두 같은 체계로 이루어지며 행정은 분리되어 있음
   - 복지정책 중 지방정부는 저소득·노년·기초의료시설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고, 주정부는 고등학교·교통·치과 등의 재정을 담당하며, 중앙정부는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가장 큰 역할임
   - 예산은 중앙(40%), 지방(60%)를 부담함(노르웨이는 천연자원인 석유와 천연가스로 나라재정이 부강하며, 기업의 2/3가 정부소요임)
3.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 후 지원토록 법제화된 복지제도




▨ **주요질문**

질문1	저소득층 대상으로 문화향유를 위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답 변	·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발하여 음악회나 여행 등의 지원이 요구될 경우 민간단체에 구호 요청을 하여 대부분이 해결되며 예산 부분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함

질문2	저소득층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 변	· 기본적으로 80만원이 나오고, 식사와 관련한 물건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집이 없다면 아파트를 구해줌 · 집과 음식, 의료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되며 기본 소득이 보장됨 · 집, 전기세, 음식, 의료 등 1인당 200만원의 금액이 지원됨

질문3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답 변	· 문화적인 부분은 민간자원을 활용함 · 기업이나 자원봉사가 주를 이루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화복지는 별도로 없으며 개개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등 수요에 맞게 지원할 정부의무가 있음

총 평	· 노르웨이는 천연자원이 풍부해 부강한 나라로 자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EU가입을 하지 않은 나라이며,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무상의료를 제공하여 개인 보험이 필요 없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복지가 탄탄한 나라임 ·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고 가장 효율적인 복지제도일 것으로 판단됨 · 우리도 현재 진행하는 문화복지 제도의 수요자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를 추진하여야 하겠음

2 스웨덴 유아복지기관



스웨덴 유아복지기관 교육실 설명



스웨덴 유아복지기관 단체사진

▨ 방문일시 : 2019. 4. 16.(화) 09:00
▨ 기 관 명 : Banerporten [스웨덴 유아복지기관]
▨ 위　　치 : Rigagatan 1 at the area Östermalm
▨ 방문목적 :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벤치마킹
▨ 내　　용 : 브리핑 및 방문단 질의

▨ 현　　황
- 원장 : Lotta Johannesson
- 운영시간 : 07:30 ~ 17:30
- 직원수/원아수 : 20명/79명(원아 4명당 1명의 선생님이 케어)

나이(세)	학생(명)	선생님(명)
1	12	3
2	14	3
3	16	4
4	18	5
5	19	5

- 기관에서 하는 일 : 보육
(영유아를 보살펴 기르고, 발달을 목적으로 교육)
- 기관의 주요시책 : 안전, 기쁨, 보육
- 기관의 주요성과 : 다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서로를 통해 성장

▨ 브리핑 내용

1. 기관소개
- 13개월부터 만5세까지 50여명의 원아와 15명의 선생님으로 구성

2. 교육방침
- 안전, 기쁨, 자아라는 슬로건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께 자아를 형성하는 교육을 실시
- 일년 교육을 세우지 않고 아이들마다 개개인의 성장을 지켜보며 커리큘럼을 수립
- 참여 및 그룹을 통해 서로를 통해 배우고 다름을 이해하는 교육을 실시
- 교사의 역할은 새로운 “주제”를 던지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관계를 통해 지식을 창의적으로 접근토록 유도

▨ **주요질문**

질문1 아동에 대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답 변 · 평생교육과 환경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의 계획을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함

질문2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입니까?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답 변 · 별도로 보육시설에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나라에 내는 세금이 다를 뿐이며 보육시설은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질문3 선생님 1명당 몇 명의 아이를 봅니까?

답 변 · 선생님 1명이 4명의 아이를 케어하고 있음

질문4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한 별도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답 변	·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한 별도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인력이 별도로 투입됨 · 다름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 배움의 영역을 더 넓힐 수 있어 차별 없이 교육을 실시함
총 평	· 선생님이 케어하는 아이의 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어 더 세심한 보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계절이나 눈·비가 오더라도 보육시간의 50%를 야외활동으로 실시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놀이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영아의 경우 아이들의 방이 마련되어 있으나 만3~5세의 경우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만들기나 창의적인 활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핀란드 노인복지시설



핀란드 노인복지시설 브리핑



문화시설이 갖춰진 시설내부

☒ 방문일시 : 2019. 4. 17.(수) 14:00
☒ 기 관 명 : KOTISATAMA
☒ 위　　치 : TOINEN LINJA 14, HELSINKI
☒ 방문목적 : 노인복지정책 벤치마킹
☒ 내　　용 : 브리핑 및 방문단 질의

☒ 현　　황
- 직원수/방문객수 : 81명 63가구 거주
  50세 이상 거주 중, 평균 73세, 최고령 88세
- 시설의 주요시책 : 함께, 참여, 같이
- 기관의 주요성과 : 새로운 주거형태인 공유주택 기획 운영
- 소유권 : 사설기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땅은 나라에 렌탈료를 내고 있음
- 운영 : 6개의 홈그룹으로 나뉘어 각 조당 12~14명이 구성되어 청소, 음식 모든 분야를 함께 공동으로 처리함

☒ 브리핑 내용

최소 48세부터 입주가능한 시설로서, 리더(관리)인력 없이 거주민들이 건축 전부터 모여 건축 디자인부터 운영에 참여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해나가고 있음.

각 원룸 및 투룸의 집과 세탁실, 게스트실, 운동실, 사우나실 및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노년인구의 새로운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음.

▨ 주요질문

질 문 1	결정해야할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때 의사결정 과정은?
답 변	입주민들의 회의를 개최하여 주기적으로 의논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들 따르는 분위기이다.
질 문 2	어떤 상황의 사람들이 주로 입주하는지?
답 변	혼자가 된 노인이나, 자식들을 독립시킨 뒤 우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입주하며 입주 후에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방문할 시 게스트룸 사용을 통해 숙박 및 식사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 평	· 핀란드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노인건강에 대한 문제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우울감 해소 및 공유하는 삶의 대한 수요로 새로운 주거형태가 나타남 · 입주자간의 역할 및 시설 운영 규칙이 뚜렷하며, 사전에 몇 차례 만남을 통하여 입주를 결정할 수 있음 ·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운영에 있어 대상자들이 중심이 될 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파악함



Ⅳ 시사점

1. 복지정책과 문화복지정책의 연계

❍ 문화복지정책 담당자들의 선진 문화복지 운영실태 및 현장체험을 통해 북유럽의 복지정책이 세밀하게 설계되어있음을 확인하였음. 복지정책의 역사가 길어 기반시설 및 정책이 잘 갖춰져 있고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으로 대상자에 맞춰져 밀접하게 이뤄지다보니 의식주 다음단계인 문화·예술에 접근될 수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경우 생필품구입이 가장 큰 부정사용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분석하였을 때 아직은 수혜자조차 문화의 요구보다 생활에 대한 요구가 더 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복지정책의 만족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생필품 및 현금화로 악용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현 복지정책 단계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정책과 문화복지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함.

2.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문화복지

❍ 북유럽의 사회약자의 시설의 경우,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의 형태로 시설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보다 공연이나 미술체험을 주로 하는 특정 단체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 추진에 있어 재단에서 추진하는 맞춤형프로그램(찾아가는 프로그램, 모셔오는 프로그램) 운영 시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에서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